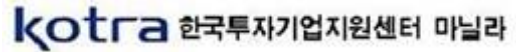




# 필리핀 투자 뉴스

2009. 4.15, Bi-Weekly, No. 18



## Focus

미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필리핀 투자, 비즈니스 환경

## 경제 통상 정보

필리핀 바이오에너지산업 한국 등 국내외 기업 투자본격화: 바이오연료혼합비율 향상 업계 요구에 정부도 검토 추진  
스미토모,마쓰이,마루베니 합작사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투자: 현지기업과 합작법인설립 통한 재생에너지분야 진출 추진

## 투자 Project 정보

투자프로젝트 정보-구리,금,은 광산 프로젝트 1

투자프로젝트 정보-구리,금,은 광산 프로젝트 2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 전문가 칼럼

필리핀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관련 유의사항

## 경제 단신

필리핀 석유공사(PNOC),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필리핀 정부 연내 Diwalwal 금광 개발권 입찰 실시 예정  
필리핀 전력자산관리공사(PSALM), 수력발전소 매각 추진  
Mindanao 철도 가설 타당성 조사 금년 내 완료 예정  
Metro Manila 교통체증 완화 위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 투자진출 A to Z

어떤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이 필리핀 법인지분 100% 소유가 허용될까요?

## 주요 경제 지표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안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법률회계 고문 무료 상담

무역투자 정보포탈(Global Window) 안내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 작성 : 필리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전화 : +63-2-893-3244
- 팩스 : +63-2-817-3369
- 홈페이지 : [www.kotra.or.kr/manila](http://www.kotra.or.kr/manila)
- 이메일 : [manila@kotra.or.kr](mailto:manila@kotra.or.kr), [hanskim@kotra.or.kr](mailto:hanskim@kotra.or.kr)



Focus

미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본 필리핀 투자, 비즈니스 환경

-투자, 무역, 서비스 분야 제약사항 지적-

-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3 월말 각국의 투자 및 무역장벽에 대한 미국입장에서의 장벽을 조사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 (NTE)'를 발간. 금년에도 지난 3.31 일 동 보고서(2009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를 발표했다.
- 동 보고서가 미국입장에서 작성되어, 특정 관행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진 부분도 있으나, 외국기업이 보는 필리핀 비즈니스 환경 장애를 다뤘다는 면에서 필리핀에 기진출한 기업이나 진출을 추진중인 우리기업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필리핀-미국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 '08 년 필리핀의 대미 수출은 87 억달러로 전년비 7.4% 감소한 반면, 대미 수입은 83 억달러로 전년비 7.8% 증가하여 대미무역흑자 폭도 전년도 17 억 달러에서 13 억 달러로 감소, 미국입장에서 필리핀은 31 번째 수출 대상국임.
  - 2007 년까지 미국의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7 억달러로 전년도 71 억달러보다 다소 감소, 주요 투자분야는 제조업, 금융, 서비스 등임.
- 업종별 외국인 투자 제한 및 토지 소유 금지
  - 필리핀의 경우 재벌들의 영향력이 막강해 이들의 입김으로 적지 않은 외국인 투자 제한 사항이 존재함.
  - 1991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은 투자제한 업종을 (Negative list) 두 개 분야로 나열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2 년 마다 Negative list 를 갱신하고 있으며, 2009.1 분기에 새로운 투자제한 분야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임.
  - 이중 List A 는 헌법에 의해 외국투자를 제한하는 분야로 대중미디어, 소형광산투자 등이 그 예이며, 이들 업종의 외국인의 지분 보유율은 0%, 20%, 40%, 60% 등으로 제한됨. List B 는 국민의 안전, 보건 등의 이유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는 분야임.

- 필리핀은 헌법에 의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금하고 있음. 1994 Investors' Lease Act 에 의거 외국인이 필리핀에 투자시 50 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추가 25 년간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동 법적용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은 특히 자원탐사 및 개발 분야의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공공시설 (Public Utilities) 관련 기업(폐수 및 오물 처리, 송전 및 배전, 통신, 교통)의 외국인 지분보유 상한선은 40% 이하이며, 동 분야의 임원 및 간부직원은 필리핀 국적자여야 함. 단 필리핀 정부는 열악한 전력 사정을 감안 발전분야는 동 제한 분야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 기간통신분야에서 외국인은 40% 이하의 지분 보유만 허용됨. 이는 1987 년 필리핀 헌법에 의한 것으로 필리핀 정부는 통신서비스 역시 공공시설(Public Utilities)로 간주하고 있음. 이에 대해 미국은 통신분야에서 외국기업은 브로드밴드와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투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분 주도권 없는 투자수행은 어렵다는 입장임.
  - 또한 외국인은 통신회사의 임원이나 간부가 될 수 없고, 외국지분 비율만큼만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수 있음. 개인라디오통신사업의 외국인 지분 비율은 20% 이하로 제한되며, 케이블 TV 및 타 미디어 분야도 외국인의 참여는 불가능한 상태임.
  - 미국측은 통신분야를 발전분야와 마찬가지로 공공시설(Public Utilities) 분류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중임.
  
- 금융분야에서도 필리핀은 WTO 금융서비스협약(WTO Financial Services Agreement)에 의한 GATS 5 조를 비준하지 않고 있음.
  - 은행업 분야에는 수많은 외국인 참여 제한 요소가 존재. 필리핀 중앙은행은 중소 은행의 난립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은행간 합병을 유도, 1999 년부터 은행신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의 은행업 투자를 막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 필리핀계 은행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필리핀인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외국은행은 최대 6 개까지만 지점 개설이 허용되며, 동 지점은 고객에 대해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은행이 자회사 설립시 모기업은 자회사 주식의 60% 이하만 보유할 수 있음. 1948 년 이전 설립된 4 개 외국계 은행에게는 동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들 역시 6 개 이상의 지점을 개설할 수는 없음.
- 보험의 경우 외국인의 100% 지분 소유가 가능하나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필리핀 정부 소유인 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GSIS)만 보험 영업이 가능함. 국내외 보험사들은 동 제약이 중요한 불공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음. 재보험사들은 재보험 계약액의 10%를 국영재보험사에 부보해야 함.
- 증권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율을 60% 이하로 제한. 필리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설립된 증권사는 필리핀 주식을 인수할 수 없음. 뮤추얼펀드 매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은 없으나 이사회 이사는 필리핀인만 가능
- 광고대행사의 외국인 지분 보유는 30%까지만 허용되며, 광고회사의 임원 및 간부직원도 필리핀 국적자만 가능. 전문직서비스(법, 약, 간호,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관세중개서비스) 면허도 필리핀 국적자에게만 발급하고 있어 외국인의 변호사, 회계사 등 개업이 불가능한 상태임.
- 소매업 (retail trade)
  - 소매업종의 경우 소매업법(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f 2000)에 따르면, 납입자본이 250 만 달러 이상이고 점포당 투자비용이 83 만불을 넘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이 100% 지분 보유 가능. 소매분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모회사의 자본금은 2 억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에 5 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이중 한곳의 투자비용이 25 백만달러 이상이어야 함. 아울러 2010 년까지 전체 재고상품의 30% 이상을 필리핀산 제품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있음.
  - 단 고가사치품의 경우 점포당 25 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총 재고상품의 10% 이상을 필리핀산으로 유지해야 하며, 모기업 자본금은 5 천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외국인에 의한 소매업종 투자는 전면 금지되고 있음.
  - 외국인 지분이 80%를 넘는 소매기업은 사업개시후 8 년안에 최소 30% 지분을 필리핀 투자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규정도 있음.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필리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투자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 IPP)에 포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위원회(BOI)가 소득세 감면, 고용비용 공제, 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저개발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BOI 등록시 관련 인프라 건설 비용 및 고용 비용의 100%까지 세액 공제 가능, 외국기업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도 해당 업종이 '개척분야 (Pioneer Status) 로 분류되거나 생산 제품의 70% 이상을 수출하면 인센티브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및 수빅, 클라크 등 경제특구에 입주가 승인된 기업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교역분야의 장벽: 관세 및 판매세 수준, 수량 제한 등

- 2008 년 기준 필리핀의 단순평균 관세율은 28.5%, 실행관세율은 7%이며, 특히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화학폐기물, 자동차 및 부품, 모터사이클 등, 이외 감귤, 곡식류, 육류, 냉동감자 등의 농산물에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기타 세관의 수입통관 지연, 관세 가치 평가시 거래가격을 무시한 참조가격의 적용, 관세청 직원의 부당요금 징수 관행도 지적
- 동남아 자동차 생산 허브를 지향하는 필리핀은 필리핀내 자동차 제조 권장을 위해 부품류 수입관세는 낮추는 반면, 자동차, 모터사이클 완제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중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 중고차 수입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를 통한 수입외에는 금지, 승용차에 대해서는 30% 관세, 화물차도 20~30%, 승합차는 15~20% 수입관세 적용
- 반면에 자동차개발 프로그램(Motor Vehicle Development Program)에 등록된 기업이 CKD 방식으로 관련제품 수입시 1%의 관세 적용, 대체연료 활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중
- 이외 수입차에 대해 12% 부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가격에 따른 판매세 부과

- 필리핀은 수입증류주와 국산 증류주에 대해 차별적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은 필리핀에 대해 수입증류주에 대한 판매세 인하를 요구중임.
- 필리핀은 옥수수, 돈육 등 15 개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 TRQ)를 실시 중이며, 이외 닭고기에 대해서는 쿼터 설정과 쿼터 초과 수입분에 대한 고관세 적용중
- 미국은 필리핀측의 Minimum Access Volume (MAV)라 불리는 특정 농산물에 대한 수입면서 발급 관리 제도에 대해서도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우려 표명

□ 정부조달에 있어 국내기업 우대 조치 운영

- 필리핀은 아직까지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가입하진 않은 상태로, 정부조달 관련 법령은 여전히 필리핀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음.
- 1993 년부터 필리핀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국산 제품, 서비스 구매시 해당 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토록한 대응무역(Countertrade) 제도를 운영중이며, 동 의무 미준수시 해당기관으로부터 벌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의 미흡

- 지재권 분야에서 필리핀은 2006 년 이후 미국의 'Special 301 Watch List' 로 등록 주된 감시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재권 보호 정도가 미흡하다는 게 미국의 평가임.
- 2007 년 필리핀 정부는 지재권 보호업무 강화를 위해 지재권 연구소(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와 훈련센터(Training Institute)를 설립하고, 광미디어위원회, 세관지재권부서를 설립했지만 예산 문제로 실질적 활동이 미약한 상태임.
-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재권 위반자에 대한 필리핀 사법부의 미약한 처벌, 저작권 영상물을 캠코더로 촬영하거나 불법다운로드 하는 행위, 최근 발효된 의약품법률 등이 지적되었으며, 미국 배급업자들에 따르면 음반,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의 해적판 난립과 케이블 방송국의 무허가 영화 상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임. 상표권 위반과 모조 상품도 만연된 상태임.

- 2008 년 필리핀 의회는 의약품(pharmaceuticals)의 특허등록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개정을 시행하여 미국제약회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동 개정안의 적용 정도를 주시하겠다고 언급.
- 1997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과 2000 전자상거래법(Electric Commerce Act)을 제정하였지만 저작권 미소지자의 방송, 재방송, 위성재송출 등에 대한 법적 제재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
- 필리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가입국으로 2002 년 WIPO 저작권협약(WIPO Copyright Treaty), WIPO 공연 및 음반협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에도 가입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은 수반되지 않고 있음.
- 필리핀 법정에서 지재권 사범을 다루는 경우가 드물고 2008 년 필리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재권 사범은 3 건에 불과하며, 20 년간 판결이 나지 않고 있는 사건도 있다고 함. 아울러 2001 년 이후 지재권 관련 유죄 판결자는 대부분 소규모 위반자에 국한되며, 대형 복제업체나 배급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다고 함.
- 동 보고서에 언급된 사항들이 미국 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일부 일방적인 측면이 있고 타국과 비해서 별다를 것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필리핀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자사 관련 해당 분야의 제약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경제 통상 정보

### 필리핀 바이오에너지 산업 한국 등 국내외 기업 투자 본격화 -바이오연료 혼합 비율 향상 업계 요구에 정부도 검토 추진-

- 바이오연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원료가 풍부한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국 등 외국기업 및 필리핀 기업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5 월, 아로요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한국기업의 필리핀내 바이오연료 공장 2 건에 대한 투자 MOU 체결식이 개최될 예정이며, 이들 2 개 공장의 투자규모는 각각 40 억 페소(85 백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필리핀 농무부와 협력관계에 있는 필리핀 농업개발공사(Philippin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Commercial Corporation)의 Agbon 사장은 General Santos 시에 자트로파를 연료로 하는 바이오디젤 공장, Tarlac 시에 사탕수수를 원료로한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짓게 된다고 발표
  - Tarlac 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용량은 하루 50 만 리터에 달하며, 이는 필리핀내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함. 현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Leyte Agri Corp.사와 San Carlos Bioenergy, Inc. 2 개사이며, 이들 기업의 하루 생산 능력은 각각 3 만 리터, 12.5 만리터임.
  - General Santos 바이오디젤 공장의 하루 생산 용량은 12.5 만 리터가 될 것이며, 5 천 헥타의 자트로파 농장에서 원료를 조달하게됨. 에너지부가 현재까지 허가한 바이오디젤 생산 기업은 10 개사로 이들의 전체 생산 용량은 연간 3 억리터에 달함.
  - 단 Agbon 사장은 구체적인 투자가 및 현지 합작기업명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투자 서명식은 5 월 아로요 대통령의 방한시 추진될 예정
  - 설탕관리국의 Coscolluela 국장도 동 계획을 확인하였으며, 투자 MOU 체결후 조속한 투자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언급.

- 최소 12 개의 필리핀 기업도 530 억 페소(약 11.1 억불)를 투자, 바이오 연료 생산 설비 건립 예정

  - 필리핀 에너지부 Reyes 장관이 4 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ia Biofuel Investment Summit 2009' 연설에서 이같이 발표



- 정부도 보다 많은 투자를 바이오연료 생산설비와 관련 인프라에 끌어들이기 위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공급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힘. 필리핀 정부는 2010 년 까지 바이오연료 생산에 800 억페소(약 17 억달러)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의 투자 움직임은 2006 년 제정한 Biofuels Act (Republic Act 9367)에 힘입은바 큼. 동 법에 따르면 이들기업은 바이오디젤 판매에 따른 부가세 및 관련 생산설비 건립에 소요되는 자본재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음.
- Reyes 장관은 또한 국립바이오연료위원회(National Biofuel Board)가 현재 바이오연료 분야 투자건을 신속히 승인하기 위해 One-Stop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힘.
-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바이오연료 생산 공장 설립에는 보통 1~2 년이 소요되고 연간 12 만톤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데 5 억페소(10.5 백만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함.
- 현재 필리핀 바이오연료법에 따르면, 금년 2 월부터 디젤연료에 CME(coconut methyl ester, 일명 코코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로 인상되었으며, 가솔린의 경우 전체 판매 가솔린의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5% 에탄올 혼합제품을 판매토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업계는 이보다 앞서 이미 에탄올 10%를 혼합한 가솔린 제품(E-10)을 판매중임.
-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및 의회를 상대로 지금의 2% 코코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비율을 5% 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도 공급 과잉상태에 있는 코코넛 오일을 처리를 위해 코코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인상을 검토중임.
- 코코넛오일협회(Coconut Oil Refiners Association and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Arranza 회장은 현재 코코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언급
- 필리핀 바이오디젤협회(Philippine Biodiesel Association) 회장이자 Senbel Fine Chemicals Company 사장인 Jose Santos 도 수출부진으로 공급 초과 사태를 빚고 있는 지금이 코코바이오디젤 함유량을 높일 적기라고 밝힘.
- Santos 회장은 코코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3.5 억리터의 코코넛 오일이 필요한데, 현재 연간 공급량은 15 억리터로 이를 초과하고 있다고 밝힘. Seoil

Philippines Inc.에 따르면 바이오디젤 1% 혼합을 위해서는 연간 6~7 천만 리터의 코코넛 오일이 필요함.

-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향상이 디젤가격 인상을 갖고올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Santos 회장은 5% 혼합으로 가격 인상이 초래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며, 타 부문의 비용 합리화로 가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
- 현재 필리핀내 디젤 가격은 리터당 P21.75~27.98 선임.

□ 에너지부는 현재 혼합비율 2%를 유지했을 경우 바이오디젤 수요는 현재의 1.3 억리터에서 2014년에는 1.6 억 리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바 있으나, Reyes 장관은 이보다 빠른 속도로 바이오디젤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밝힘.

□ 에너지부 석유관리국(Oil Industry Management Bureau)의 Monsada 국장도 NBB 가 현재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인상을 검토중이며, 기술적으로는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5% 까지 높아져도 차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함.

□ 필리핀은 풍부한 자연자원과 국토환경을 바탕으로 재생, 바이오에너지 분야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우리기업 및 경쟁국 기업의 투자 검토도 이어지고 있어, 해당 분야 투자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미토모, 마쓰이, 마루베니 합작사 필리핀 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현지 기업과 합작 법인 설립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 진출 추진-**

- 일본 거대기업인 스미토모, 마루베니, 미쓰이사가 합작 자회사를 통해 필리핀 내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본격화 하고 있음.
  - 일본 MG Leasing Corporation (MGL)사와 필리핀 현지기업인 Solutions Using Renewable Energy, Inc.(SURE)사는 최근 SURE 가 60%, MGL 이 40% 지분을 보유한 SURE Eco Energy Philippines Inc.(SURE Eco) 명의 합작법인을 설립
  - 리스기업인 MGL 사는 Sumitomo Mitsui Finance and Leasing Corporation(SMFLC)가 55% 지분, Marubeni Corporation 이 45% 지분을 보유한 합작사이며, SMFLC 는 Sumitomo Corporation 과 Mitsui Group 사가 대주주로 있음.
  
- 스미토모, 마루베니는 대표적인 필리핀 투자진출 일본 기업으로 마루베니는 전력, LNG 등 에너지 분야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스미토모는 필리핀 유일의 니켈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등 광산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필리핀 내 재생에너지 분야의 대표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SURE 사는 이번 합작계약으로 SURE Eco 사에게 폐기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함.
  - 동 폐기물 발전 프로젝트는 Sumilao, Bukidnon 지역의 현재 산미구엘사가 운영중인 몬테레이 돼지 농장 프로젝트, Lipa city, Batangas 의 Silangan 농장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San Pedro, Laguna 의 Holiday Hills 사 프로젝트 등이 포함됨.
  - 반면, MG 사는 SURE Eco 사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에 3 백만불 이상의 투자금을 대기로 함.
  
- SURE Eco 사 설립 및 단독 필리핀 사무소 개설을 검토 중인 MGL 사는 필리핀내 재생에너지 투자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MGL 모기업인 일본 대기업들이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산업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신호임.
  
- SURE 사는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 퇴직자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 주요 사업분야는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으로 알려져 있음.

**☐ 투자 Project 정보**

- 아래 프로젝트는 필리핀 정부관계자로부터 입수한 광산투자 프로젝트입니다.
- 동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1**

<b>Area Coverage</b>	1,603 hectares
<b>Mining Tenement</b>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5 VI
<b>Date File</b>	November 5, 2007
<b>Location</b>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b>Commodity</b>	Gold, Copper, Silver, etc.
<b>Ore Analysis</b>	7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b>Locator</b>	Ms. Susan P. Lim

**투자 프로젝트 정보 - 구리, 금, 은 광산 프로젝트 2**

<b>Area Coverage</b>	1,235.25 hectares
<b>Mining Tenement</b>	Exploration Permit Application denominated as EXPA-000083 VI
<b>Date File</b>	October 1, 2007
<b>Location</b>	Municipality of Barbaza, Province of Antique
<b>Commodity</b>	Gold, Copper, Silver, etc.
<b>Ore Analysis</b>	4.56% Cu; 1.33 gpt Au (surface exposure)
<b>Locator</b>	Mr, Quirico G. Pe

- 아래 프로젝트는 필리핀 대표 투자 컨설팅 Firm(Private Equity Adviser)인 Argosy 사와 협력, 제공하는 FDI (직접투자)분야 프로젝트 정보입니다.
- 동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은 저희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 임성주 차장 / Tel: +63-2)893-3244, 1183 / sungju@kotra.or.kr
- 단, 동 정보는 한국기업에게 프로젝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 정보의 정확성, 추진기업과 KOTRA 는 관련이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 'Leyte' 니켈 광산 개발 Project (Magnetite/Iron/Ferronickel Opportunities)

**- Miner "Code Name" is a private mining company with projects in Leyte, Philippines**

Controls 40,000 ha of claim applications (**two large mining permits just granted**). Completed 33,440 meters of drilling in 3,597 holes. Reserves of 10 million tons of measured and 192 million tons of indicated recoverable magnetite concentrate (> \$100 Billion).

**- Miner is working on three independent but synergistic projects:**

Magnetite sand mining and magnetite concentrate processing;

Sponge iron production and downstream conversion to steel and vanadium; Ferronickel production.

**- All projects require:**

Little capital and exhibit very low operational costs (bottom 25%). Profitable at the lowest iron and nickel prices over the last 10 years. Estimated revenue of \$244 million in Stage 1 and \$ 2 billion in Stage 2 and pretax profit of \$149 million per year for Stage 1 and \$1.2 billion for Stage 2.

**- Miner obtained rights to 50% JV over decommissioned cement plant**

With minor modification will be used to produce Sponge Iron and Ferronickel. Consequently, capital costs kept to a minimum.

**- Ferronickel Operation**

Two lines allocated (lines 1 & 2). Line 1, 90% rehabilitated, Price is \$890 (5.3% Ni) and cost is \$339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ferronickel price goes down to \$20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3,271 per ton and lowest \$574 per ton.

**- Sponge Iron Operation**

Price is \$350 and cost is \$247 per ton, Can make money even if sponge iron price goes to \$190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800 per ton and lowest \$200 per ton.

**- Significant upside on downstream Operations**

Three million steel productions for local market in a Stage 2 integrated steel and vanadium operation using low cost geothermal power generated near to the magnetite production area. Cash costs amongst lowest in world – significant vanadium byproduct credits

**- A low risk brownfields restart, not a greenfields start-up:**

INCO was exporting 1 million tons/year and was highly profitable;

Operations closed in 1975 due to ban on beach sand mining;

Restart due to new Mining Act and growth in worldwide demand.

**- Favorable Polit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Low population density and economically depressed area;

Mining process is simple, no chemicals. Land is restored to a better condition within a 6 month period; Crop yields increase and farmers generously compensated.

**- Economic Factors: (November costs and prices)**

Mining/processing cost in lowest quartile on world cash cost curve (\$15/ton). Current price is \$47 per ton.

Over last 10 years, highest price was \$75 per ton and the lowest \$19 per ton.

Magnetite concentrate production rate per year of up to 10 million tons is practicable; Off-take agreement for initial supply of 1.2 million and up to 3.6 million tons for export and 1.0 million for domestic processing.

---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소 Project**

---

- The opportunity is to partner with a local company in deploying highly efficient, clean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in the Philippines. The Philippines is already experiencing power shortages and the situation is expected to get worse over the next years.
- The local company has preferred access to large amounts of affordable domestic coal. Using coal to generate electricity is by far cheaper than using oil, bunker or diesel. Domestic coal is 30% cheaper than imported coal.
- The local company is in the process of deploying highly efficient, coal-fired power plants to niche markets with no access to viable renewable energy sources and poorly served by the grid. These niche markets are highly profitable and its relative small size will not attract significant competition from major power players. The objective is to deliver at least 500MW in the next 3/4 years.
- Partnering with the local company will generate significant competitive Advantages Secure long term coal supply. Low power generation costs. The local company will price the coal to offset any potential inefficiency from smaller coal power plants. Secure affordable financing. Smooth and fast approval of power projects.
- The local partner is currently working on two deals with an IRR of 24% to 46%.

## ▣ 전문가 칼럼

### 필리핀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관련 유의사항

노무관리 관련 우리 투자기업의 문의가 많은 것 중 하나가 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것이다. 외국인 고용과 관련 먼저 거주자 및 비거주자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거주자(Resident)란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영주할 수 있는 비자(이민 영주비자, 특별법에 의한 영주 비자 등)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필리핀 이외 국가에 주소를 두고 필리핀 내 영구 체류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을 가리킨다. 비거주자는 체류 안정성뿐 아니라 때론 재판관할권 및 세금납부 등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구별된다.

외국인의 현지 고용 관련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차이

필리핀 내 직업을 갖는 모든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노동부에서 Alien Employment Permit(외국인 노동허가서)을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는 비자와 별개의 것으로 비자심사가 법무부 산하 이민국에서 이뤄지는 것과 구분된다.

반면, 거주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과거 노동분쟁 판례에서 NLRC(지역노동청으로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의 약어)에서 규정된 바 있다.

노동허가서는 발급 및 면제 대상

필리핀 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선교목적 가진 자, 투자자, 은퇴비자 소유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 등에게 발급된다. 단 외교관 및 외국 정부공무원, 필리핀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 파견 외국인에게는 면제가 된다.

이 밖에 필리핀 법인의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지만 의결권만 갖고 별도 경영진의 직위를 갖지 않는 경우, 이외 특별법으로 명시된 경우도 노동허가서가 면제된다.

노동허가서 취득 후 유의사항

일단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외국인은 재직 중 노동부의 사전승인 없이 타직장으로 이직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며, 이직 시 이에 대한 허가를 노동부로부터 심사 받은 후 본인이 소지한 ACR, I-Card, 여권, 기존 직장의 사직처리 공문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측에 귀책 사유로 사전허가 없이 이직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해당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 및 연장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최고 3년이며, 해당기간 노동법 준수, 소득세 신고 등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한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법인 이사로 등재된 외국인에 대해서 1년의 노동허가서 및 취업비자가 발급되는데, 이는 필리핀 주식회사법상 이사 임기가 1년으로, 매년 이사진을 재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민국에 해당 외국인의 직위(Position)를 이사(Director)대신 적당한 타직위로 표기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제이박

필브릿지 대표이사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 ▣ 경제 단신

### 필리핀 석유공사(PNOC),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추진

- PNOC(Philippine National Oil Corp.)는 신규 설립 자회사인 PNOC Renewables Corp.사를 통해 금년 3 분기 중 재생에너지 발전소 2 기 건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 PNOC 는 현재 태양광, 풍력, 수력발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참여 분야를 검토 중인 동시에 수십억 페소가 투자될 동 프로젝트의 합작 및 투자기업을 찾고 있음.
- PNOC 는 2008.11. Petron Corp.사 지분 매각 자금을 활용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임
- PNOC 는 올 초 30MW 급 수력발전소 건설 및 태양광 시스템 40,000 개를 2013 년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 발효한 바 있으며, Shell Solar Philippines 사로부터 2,500 만 페소에 달하는 Solar Homes Systems 를 구입, 독립형태양광시스템 15,100 개를 설치 완료한 상태임. (Business World 4.14)

### 필리핀 정부 연내 Diwalwal 금광 개발권 입찰 실시 예정

- 정부는 Mindanao 남부 Diwalwal 의 729ha 금광지대 개발권에 대한 입찰 실시 예정
- 2 년 전 동 금광을 탐사한 필리핀광산개발공사(Philippine Mining Development Corp.)에 따르면, 이 지역의 금 매장량이 약 백만 온스에 달하며, 개발권입찰은 3 개월 내 실시될 예정이고, 현재 Philex Mining Corp. 등이 동 광산 개발권 획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필리핀광산개발공사 부사장인 Jaime de Veyra 는 밝힘.
- Diwalwal 의 다른 광산인 Upper Ulip-Paraiso 금/구리 광산(1,620ha)은 2 회 유찰되었음
- 필리핀 정부는 3.31 일에 진행된 입찰에서 동 광산의 25 년 개발권 낙찰가액을 최초 1 년 US\$150 만 불에서 US\$50 만 불로 낮췄지만, 금 매장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유찰됨
- Jaime de Veyra 는 Diwalwal 근처 Compostela Valley 주의 금/구리 광산(23,000ha)에 대한 개발권 입찰도 금년 내 실시될 것이라 밝힘 (Business World 4.14)

---

**필리핀 전력자산관리공사(PSALM), 수력발전소 매각 추진**

---

-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민자발전사업(IPP) 진흥을 위해 PSALM 은 수력발전소 3 개를 매각할 예정에 있다고 밝힘
  - 매각대상은 일본의 Marubeni Corp.사와 Kansai Electric Power Co., Ltd 사가 San Miguel, Pangasinan 지역 내 공동 운영 중인 140MW 급 San Roque 수력발전소, California Energy Casecan Water and Energy Co., Inc. 사가 필리핀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으로부터 수주,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으로 운영 중인 Nueva Ecija 지역의 340MW 급 Casecan 수력발전소임
  
- Luzon 지역 10 개 발전소에 대해 신규 IPP 계약 추진 중
  - Batangas 지역 1,200MW 급 Ilijan 천연가스 발전소(KEPCO Ilijan Corp. 운영중), La Union 지역 215MW 급 Bauang 디젤발전소(Bauang Private Power 운영중), Zambales 지역 116MW 급 Subic 디젤발전소(Enron Power Corp. 운영중), Tongonan Leyte 지역 440MW 급 Leyte B 지열발전소 (Energy Development Corp. 운영중)등이 신규 사업자 선정 대상임.
  - IPP 발전사업자로 선정되면 생산 전력을 Wholesale Electricity Spot Market 에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2010~2021 중 IPP 계약 종료 시 발전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Business World 4.13)

---

**Mindanao 철도 가설 타당성 조사 금년 내 완료 예정**

---

- 필리핀 교통통신부는 Mindanao 철도 가설을 위한 전략철도개발(Strategic Railway Development) 연구 수행 중
  - 동 연구는 Cagayan de Oro-Iligan 철로 타당성 동 연구는 Cagayan de Oro – Iligan 철로 타당성조사, Cagayan de Oro-Davao-Genral Santos City 철로 예비타당성 조사, Iligan City-Zamboanga City 철로 기술평가를 포함.
  - Mamondiong 교통통신부(DOTC) 차관은 US\$80억~100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Mindanao 철도 프로젝트를 위해 폴란드, 사우디, 스페인 기업과 철도개발 기술지원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 2009 운송인프라 개발 예산으로 DoTC 전체예산의 41%인 27.9억 페소가 Mindanao 지역에 책정되었음.
- 철로 외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으로는 2012년 완공 예정인 78.53억 페소 규모의 Languindingan 공항개발프로젝트, 올 10월 완공예정인 4.78억 페소 규모의 Dipolog 공항 개발 프로젝트, 올 7월 완공예정인 2.15억 페소 규모의 Ozamiz 공항개발 프로젝트 등이 있음. (Business World 4.13)

---

### Metro Manila 교통체증 완화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 Metro Manila 시내 교통개선을 위해 Metro Pacific Tollway Corp.이 도로프로젝트에 380 억 페소 투자 예정
- MPTC 는 Mindanao Ave.와 North Luzon Expressway(NLEX)를 연결하는 프로젝트와 도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목적의 3 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
- Pangilinan MPTC 사장은 동 프로젝트가 운전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줌은 물론 향후 5 년간 107,000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 발표
- 동 프로젝트 자금으로 MPTC 투자금 380 억 페소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50 억 페소는 World Bank 나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rp.(JBIC) 차관으로 추진될 예정임. (Business World 4.3)

## ▣ 투자진출 A to Z

---

### 어떤 경우에 외국투자기업이 필리핀 법인지분 100% 소유가 허용됩니까?

---

필리핀 외국인투자법(Foreign Investment Act)에 의거, 투자제한분야(Negative List)로 열거되지 않아야 하며, 납입자본금이 US\$20 만 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50 인 이상을 직접 고용하거나 하이테크(advanced technology)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이 US\$10 만 불로 감액됩니다.

▣ 주요 경제 지표

	2006 년	2007 년	2008 년
GDP 성장률(%)	5.4	7.2	4.6
1 인당 국민총생산(USD)	1464	1770.9	1507
필리핀 물가지수 (모든 품목에 대한 평균)	6.9%	2.3%	6.0%
인플레이션 (2000 년=100)	5.5%	2.8%	6.2%
단기채권(91 일) 이자율	5.35%	3.41%	5.39%
정기예금 이자율	4.94%	3.41%	4.06%
대출금리	9.71%	8.68%	8.76%
경상수지(USD 백만불, %)	-6732	-8211	-6994 (11 월)
수출(USD 백만불, %)	46526	49512	46351
	15.6%	6.4%	0.8% (11 월)
수입(USD 백만불)	53258	57723	53345
	10.9%	8.4%	5.6%
총 투자(USD 백만불)	-118	2865	1640 (9 월)

환율동향

	2007년	2008년			2009년	
		10월	11월	12월	3월	4월
페소/ 달러	45.93	46.92	48.75	48.88	48.54	48.05
원/ 달러	9353	1324.2	1397.3	1375.6	1460.09	1335.92
페소/원	20.39	27.73	28.54	28.82	30.24	27.97

## ▣ 해외투자진출 관련 안내

---

### OIS(해외진출정보시스템) 및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온라인카페) 안내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12월 해외진출정보시스템을 오픈하였으며, KOTRA 마닐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OIS내 '필리핀비즈니스 클럽(온라인 커뮤니티)'을 운영하고 있는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및 정보공유를 바랍니다.

•**주요제공정보:** 투자뉴스, 투자자료실, FAQ, Q&A 등

•**커뮤니티이용방법:** 홈페이지([www.ois.go.kr](http://www.ois.go.kr))에서 커뮤니티(카페명:필리핀, 비즈니스 클럽)에 접속하고 커뮤니티 가입 후 정보 이용

---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 변호사 무료 상담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해외투자진출 기업 및 기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진출 관련 제도 (법률, 노무, 세무) 및 경영 애로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며, 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에 의한 내방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바 필리핀 진출 기업 및 진출 추진 기업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주 1회(매주 목요일) 사전 예약 업체에 한해 센터 내 고문변호사와 대면 상담
- 이메일: [hanskim@kotra.or.kr](mailto:hanskim@kotra.or.kr)
- 연락처: +63-2-893-3244,1183

---

### 무역투자 정보포탈 (Global Window) 안내

---

KOTRA는 한국기업의 무역투자 활동 지원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무역관이 수집한 정보를 Global Window([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

---

### 필리핀 투자뉴스 지난호 보기

---

필리핀 투자뉴스의 지난호를 보시기 원하시는 경우 상기 안내드린 '필리핀, 비즈니스 클럽' / '필리핀 투자뉴스' 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신바, 많은 활용 바랍니다.